

미군 철수·방위비 분담금 인상...한미 군사관계 격랑 예고

한미 동맹 안보 영향은

정부 올해 부담금 9441억
2018년 협정 갱신 앞두고
급격한 변화면 외교문제 비화
반미감정·핵무장론 나올수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9일 당선됨에 따라 한미 양국 군사관계도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가 지론대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한국에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한미동맹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함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확장 억제 정책 등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동맹의 안보비용 부담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왔으며 심지어 비용 분담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한미 군사관계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3630억원이고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각각 4220억원, 1591억원이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작년(9320억원)보다 1.3% 늘었다. 우리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2005년만 해도 6804억원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1조원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모든 이와 다른 나라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은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1990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액 부담했지만, 1991년부터 2~5년 주기로 한국과 특별조치협정(SMA)을 맺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방위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9차 SMA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한미 양국은 마지막 해인 2018년에 협상을 거쳐 새로운 SMA를 체결해야 한다. 트럼프가 기존 협정을 준수한다면, 그가 이끄는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제10차 SMA 체결 협상에서 불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정부에 1조원이 훌쩍 넘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 기간 내놓은 다소 과격한 주장을 고려하면 2조원, 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한국에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우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펼친 주장대로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고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미감정에 불이 붙을 경우 한미동맹이 근본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크다. /연합뉴스

국내 정치권 반응

“한미관계 성숙 기대”

“현실 안주 준엄한 경고”

“낯은 정치 심판한 것”

새누리당은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군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미관계가 더욱 성숙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미국 대선 결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기성 정치권이 결코 과거에 매몰되거나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굳건히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파악한 삶과 희망 없는 미래에 아우성치고 있는 미국 국민이 민생과 괴리돼 기득권이 되어 버린 낯은 정치를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상탄 정치의 아웃사이드였던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는 기존 정치권에 반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리퍼트 미 대사 “한미관계 변함없이 강할 것”

마크 리퍼트(사진) 주한 미국대사는 9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한미관계는 변함없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개표 관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결과가 한미관계에 줄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미 동맹관계는 지난 60년 이상 강했다(strong)”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관계는 과거 부침(ups and downs)도 있었지만 언제나 강화되어왔고(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강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국 내 미국인, 한국 사람들에게 모두 특별한 행사”라며 “그것이 내가 세준이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아들 세준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리퍼트 대사는 “이번 대선은 미국인, 한

그는 또 “대선은 특히 미국인에게 4년마다 찾아오는 특별한 행사”라며 “이런 선거를 우리의 동맹인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보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리퍼트 대사는 개표 중간에 마련된 이번 인터뷰에서 선거 예측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트럼프 아는 사람 없소?

세계 직접 교분 없어 인맥찾기 비상
트럼프 자문단 멤버 풀러오는 인연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우리 재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관계나 외교 분야와 마찬가지로 재계에 도널드 트럼프의 인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요 수출 시장인 한국으로서 미국 정가와 인맥도 중요하다.

세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교분이 있는 인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의 외교안보 자문단에 포진한 에드윈 풀러 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과는 인연이 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풀러 전 이사장은 트럼프 캠프의 거 유인한 친한파로 알려졌다. 그는 1971년 방한한 이래 매년 두세 번 한국에 왔고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국내 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풀러 전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소문난 미국통이기도 한 김승연 회장은 지난달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풀러 전 이사장을 만나 환담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간 경제 현안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

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과거 대우그룹과 인연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당시 대우그룹의 건설회사였던 (주)대우의 건설 부문(현 대우건설)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트럼프와 공동으로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에 초고층 건물인 ‘트럼프월드타워’를 건설했다.

지하 2층, 지상 70층에 376가구 규모의 최고급 콘도미니엄(분양 아파트)과 헬스클럽, 고급 식당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총 2억4000만 달러를 투입해 착공 3년 만인 2001년 10월 완료됐고 분양도 순항해 트럼프와 대우건설 모두 수익을 챙긴 성공 사례로 남아 있다.

트럼프는 외환위기가었던 1998년 6월 대우그룹의 초청으로, 1999년 5월에는 여의도 트럼프월드 1차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 두 차례 내한하기도 했다. 첫 번째 방한에서 대우증권의 거제 옥포조선소에 들러 “개인 요트도 사용하지 위해 구축한 1척을 팔수 하겠다”는 발언을 해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으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NSC 상임위 개최...美 대선 결과 대책 논의

청와대는 9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NSC 상임위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의 외교·안보·국방 등 대외정책과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두루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주에도 NSC 상임위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한 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오후 정부서

울청사에서 미국 대선결과와 관련한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고 “북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인수위 단계부터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해주시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대해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한미 관계가 우리의 외교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차기 트럼프 행정부

와의 관계 발전을 돈독히 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교안보 부처는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한 구체 방안들을 기초로 미국 차기 행정부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 북핵 문제를 위한 한미의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 기조가 미국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 무등록자는 파헤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 · 사무실 · 병원 등 최적입지

▶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딱딱 올려주는 글씨교정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 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 · 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임대공장 업주의 희소식!!!

자본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공장을 갖고 싶습니까?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 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증권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교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 2016. 12월 19일(월) ~ 2017년 2월 4일(토)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